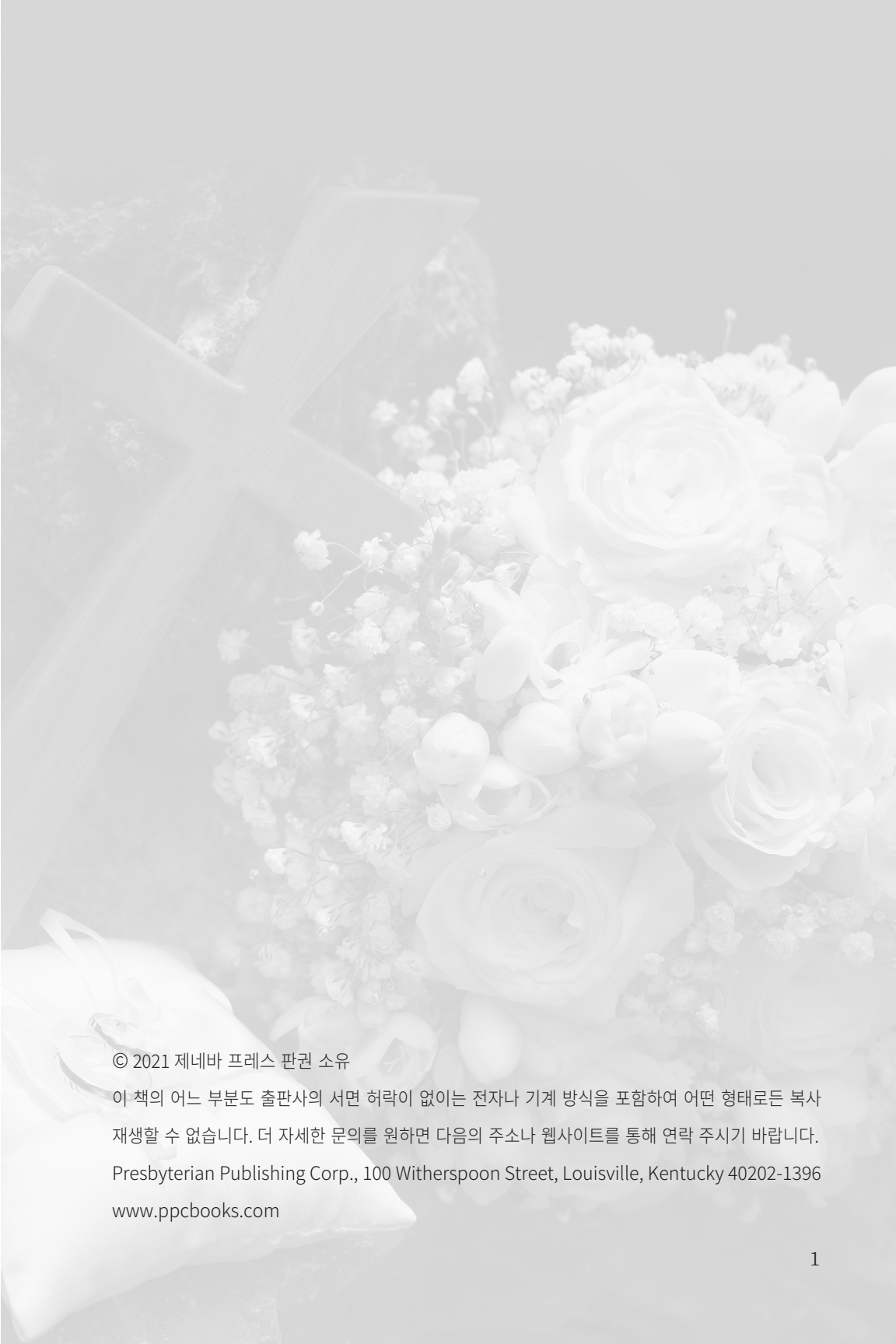
요한계시록

신부단장

박선규 목사 지음



© 2021 제네바 프레스 판권 소유
이 책의 어느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락이 없이는 전자나 기계 방식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복사 재생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면 다음의 주소나 웹사이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resbyterian Publishing Corp.,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entucky 40202-1396
www.ppcbooks.com

편집자 박선규 목사
집필자 박선규 목사(총회출판국)
감수자 김윤민 목사(내쉬빌한인장로교회),
김기석 목사(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조원태 목사**(뉴욕우리교회)

차 례

편집자 노트 / 3
활용법 / 4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 /6
총론 / 8

제 1 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2
제 2 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1) 17
제 3 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2) 24
제 4 과 장차 될 일의 서막 30
제 5 과 인을 떼시는 어린 양 35
제 6 과 144,000과 두 증인 42
제 7 과 나팔이 불려질 때 48
제 8 과 사탄의 박해와 하나님의 보호 53
제 9 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58
제 10 과 마지막 재앙 64
제 11 과 큰 음녀의 비밀 70
제 12 과 바벨론의 최후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75
제 13 과 그 날을 위해 80

Editor's Note

편집자 노트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로맨스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 받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면에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은 인간이 너무도 사랑스러웠다. 자신이 창조해 놓고도 놀라워할만큼 아름다웠다. 아담이 하와를 향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라고 한 기쁨과 감탄의 표현은 아마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며 느꼈던 감정과 유사하지 않았을까! 인간은 피조물을 넘어 하나님의 연인이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에덴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로맨스를 즐기고 계셨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름다운 로맨스가 깨지는 비극이 발생한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의 호흡과 같았던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밀어내고 만다.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고, 마치 도미노 현상과 같이 인간과 인간 사이 및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의 관계까지도 깨지고 만다. 그 후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만물의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행 3 : 21).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3장은 창세기의 첫 3장에서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준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만물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로맨스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깨졌던 다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자로 비유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십자가를 통해 명백하게 보여주셨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신랑으로 맞아들이기로 결심한 자들이다. 예수님은 그의 신부가 준비될 때에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로맨스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 온 세상에서는 그 날을 위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신부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날에 점도 주름도 흠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어린 양의 신부 단장을 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다. 당신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고대하며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가?

켄터키 루이빌에서
박선규 목사

"킹덤 라이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며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훈련하기 위한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이다. 이 교재는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 교재라는 말보다는 훈련 교재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

마음 열기

그날에 공부할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일상 속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먹한 분위기를 깨고 서로를 향해 그리고 말씀을 향해 마음이 열리게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말씀 듣기

성경을 천천히 읽고 듣는 가운데 본문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 보는 단계이다.

1. 말씀 듣기는 두 번으로 되어 있다. 처음 읽을 때는 본문을 다 함께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읽기 전에 배경 설명과 도움말을 먼저 읽은 후에 본문을 읽는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책 안에 있는 지시를 따라 읽고 경청한다.
2.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느낌과 인상을 얻는다.

Kingdom Life

활 용 법

말씀 깨닫기

1. 말씀 깨닫기에 나오는 4개(혹은 3개)의 질문들은 성경 본문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도록 고안된 관찰 질문들이다.
2.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했지만, 간혹 배경설명이나 도움말을 참조해야 할 때가 있다.
3. 인도자 교재에는 성경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질문들 외에 점점 심화되는 추가 질문들(해석 질문과,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게 하는 질문[거울 질문])들이 나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세 가지 질문들은 인도자가 모임을 나눔 식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말씀 따라 살기

1.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나누는 과정이다.
2. 첫 번째 질문은 개인에게, 두 번째 질문은 공동체(교회, 이웃, 나라, 세계)에 적용하는 질문이다.
3. 말씀 깨닫기 단계에서 본인이 직접 깨달은 것이 있다면 교재에 실린 실천사항 대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라.

1. 인도자는 가르치는 자(teacher)라기보다 참가자들이 말씀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진자(facilitator)임을 명심하라. 따라서 답안지를 읽어 주거나, 답을 길게 설명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도록 하라.
2. 그날의 모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며, 참가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라.
3. 각 단계별 지침 : 1시간을 기준으로 세 단계로 나누었다. 교회마다 혹은 소그룹마다 성경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인도자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그 날의 내용을 다룰 수 있기 위해 미리 각 단락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인도자용에 나오는 것을 모두 다룰 필요는 없다. 해당 과에 나오는 '인도자를 위한 이과의 목적'에 충실하게 인도하기만 하면 된다.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15분)

1.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표** : 인도자가 그 날에 공부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오늘의 말씀/찬송/기도**
3.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 이 교재의 핵심 가치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훈련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참가자들에게 말씀 따라 살기에서 실천하기로 결단한 것을 한 주간 꼭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다음 주 모임에 와서 실천한 것들을 나누도록 하라. 다만, **시간을 염두에 두면서** 한 두 사람 정도 나누게 하면 좋을 것이다.
4. **마음 열기** : **시간을 염두에 두면서** 한 두 사람 정도만 나누게 해도 괜찮다.
5. **말씀듣기 1, 2** : 첫 번째 읽을 때는 본문을 다 함께 읽도록 하자. 그런 후에는 배경 설명과 도움말을 읽거나 간략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하고, 두 번째 읽을 때에는 교재에 나와 있는 지시에 따라 읽고 경청하게 하라. 말씀 듣기의 목적은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면서 본문의 전체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보게 하는 것이다. 마치 하늘에서 숲을 보는 것과 같이 말이다.

Kingdom Life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

말씀 깨닫기(30분)

1. 관찰 질문에 이어 관찰한 말씀의 의미 혹은 하나님께서 그 당대의 독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해석 질문**이 추가되어 있다. 또한, 관찰한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게 함으로써 그 의미가 오늘 나(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그 당대의 독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오늘 나(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거울 질문**)이 추가되어 있다.
2. 참가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현재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게 된다.
3. 인도자는 답을 읽어주어서는 안된다. 인도자가 답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4. 시간적 제한이 있다면 매 질문마다 모든 참가자들이 답하게 할 필요는 없다.

말씀 따라 살기(15분)

1. 첫 번째 질문은 개인 적용이고, 두 번째 질문은 공동체 적용이다.
2. 첫번 째 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해 볼지 나누어 봅시다”와 같은 유형의 질문을 하라.
3. 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첫번째 개인 적용을 위한 질문을 건너뛰게 해도 된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은 첫번째 질문에 답하고, 그것을 한 주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
4. 두 번째 공동체 적용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실천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논쟁이 많은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닌가 싶다. 초기 교회 역사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정경에 넣을지 말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정도였고,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책을 폄하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없는 성경을 상상해 보라. 창세기에 기록된 인류의 시작과 타락 그리고 그후로 시작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회복의 여정이 요한계시록이 없이 유다서에서 끝난다면 성경은 온전한 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A.D. 81-96)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 하나님 나라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입은 주의 종들을 통해 로마를 포함하는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나갔다. 그리하여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조만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는 소망을 지니고 살았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의 핍박은 점점 증가되고 있었다. 특히,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스스로를 신이라 주장하면서 백성들에게 자기를 '주와 하나님'이라 부르도록 명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안디바와 같이 순교하거나 사도 요한과 같이 밧모 섬에 유배당하는 자가 나타났으며, 또한 핍박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타협하는 자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의 계시와 명령에 의해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일차적으로는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졌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1세기의 성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책은 종말이 도래하기까지 이땅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 그때까지 감추어졌던 비밀을 계시해 준 책이다. 이처럼 장래 일에 대한 베일이 벗겨져 책으로 남겨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이 책은 많은 상징들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어떤 관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Kingdom Life

총 론

1. **과거주의적 관점(preterist)**
   이 관점을 따르는 자들은 이 책의 예언들이 로마의 쇠퇴와 멸망에 의해 모두 성취되었다고 믿는다.

2. **미래주의적 관점(futurist)**
   이 관점을 따르는 자들은 계시록의 내용이 종말 전 마지막 몇 년 사이에 일어날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미래의 사건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3. **역사주의적 관점(historicist)**
   이 관점은 계시록의 내용이 주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전체 교회 시대를 포괄한다고 믿는다.

4. **이상주의적 관점(idealist)**
   이 관점은 계시록의 내용을 '신화'처럼 취급한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영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관점을 선택해야 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종 그들 당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역사의 끝에 있을 미래의 사건들과 연결시켜 표현하곤 했다. 구약의 예언서들에는 현재의 사건들과 종말적 사건들이 시대적 구분이 없이 함께 기술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종말에 있을 여호와의 날에 연결시켜 기술했다(사 13 : 1-22). 선지자 요엘은 메뚜기와 가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주의 날에 있을 종말적 심판과 연결시켰다(욜2 : 1-11). 이와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임박한 역사적 심판을 종말에 있을 마지막 심판과 연결시켰는데, 다니엘은 헬라의 한 왕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를 종말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로 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거주의적 관점과 미래주의적 관점을 병합해서 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그 당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하에서 핍박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또한 장차 대환난 시에 적 그리스에 의해 핍박을 받을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로마의 황제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대환난은 우선적으로 종말론적 사건을 의미하지만, 또한 교회가 1세기 로마나 그 후 악의 세력들로 인해 직면하는 모든 환난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하에서 핍박 받고 있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인내하며 이기라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을 뿐 아니라, 그 후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다고 말할 수 있다.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인내하고 이겨야 하는가? 장차 도래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어린양의 신부 단장을 위한 매뉴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책의 구조

I. 서론 1 : 1-8

II. 첫 번째 환상 1:9-3:22
    1.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1 : 9-20
    2. 일곱 편지 2 : 1-3 : 22

III. 두 번째 환상 4 : 1-16 : 21
    1. 하나님께 드리는 천상의 예배 4 : 1-11
    2. 두루마리를 취하는 어린 양 5 : 1-14
    3. 여섯 인 6 : 1-17
    4. 인치심을 받은 십사만 사천 7 : 1-8
    5.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7 : 9-17
    6. 일곱째 인 8 : 1
    7. 여섯 나팔 8 : 2-9 : 21
    8. 천사와 작은 책 10 : 1-11
    9. 두 증인 11 : 1-13
    10. 일곱째 나팔 11 : 14-19
    11. 용과 여자 12 : 1-17
    12. 두 짐승 13 : 1-18

13. 마지막 추수 14 :1-20

14. 일곱 대접 15 : 1-16 : 21

IV. 세 번째 환상

1.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17 : 1-18

2. 바벨론의 멸망 18 : 1-19 : 5

3.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 : 6-10

4. 주의 재림 19 : 11-16

5.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와의 전쟁 19 : 17-21

6. 사탄의 결박, 부활, 천년 왕국 20 : 1-6

7. 사탄과 사망의 최후 20 : 7-15

8. 새 창조 21 : 1-8

V. 네 번째 환상

1. 새 예루살렘 21 : 9-22 : 5

VI. 결어 22 : 6-21

목차

제 1 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계 1 : 1-10)
제 2 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계 2 : 1-29)
제 3 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2(계 3 : 1-22)
제 4 과 인을 떼시는 어린 양(계6 : 1-17)
제 5 과 144,000과 두 증인(계 7 : 1-4, 9-14, 11 : 1-8; 14 : 1-5)
제 6 과 나팔이 불려질 때(계 8 : 1-13; 9 : 1-21)
제 7 과 사탄의 박해와 하나님의 보호(계 12 : 1-17)
제 8 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계 13 : 1-18)
제 9 과 삼손: 구별된 나실인(삿 13 : 1-7; 15 : 9-20)
제10과 마지막 재앙(계 15 : 1-16 : 21)
제11과 큰 음녀의 비밀(계 17 : 1-18)
제12과 바벨론의 최후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계 18 : 1-11; 19 : 1-10)
제13과 그 날을 위해(계 20 : 1-15; 21 : 1-8; 22 : 6-2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제1과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 6-7페이지에 나오는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을 꼭 숙지해주세요.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요한계시록에 담긴 계시의 중요성을 분명히 깨닫게 함으로, 그 내용을 읽고 듣고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하게 한다.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15분)

오늘의 말씀 : 요한계시록 1 : 1~20

찬송 : 87장(통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기도 : 정해진 담당순서에 따라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계시'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 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해줍니다.

배경 설명 :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 하나님 나라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입은 주의 종들을 통해 로마를 포함하는 온 세상으로 확장

되어 나갔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여러 황제들에 의해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다. 특히,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스스로를 신이라 주장하면서 백성들에게 자기를 '주와 하나님'이라 부르도록 명하였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다.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계시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교회에 알리시기 위해 이 책의 내용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일차적으로는 1세기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게 될 사건들이지만, 또한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모든 성도들이 직면하게 될 사건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하에서 핍박 받고 있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인내하며 이기라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을 뿐 아니라, 또한 그 후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 할 수 있다.

도움말 :

- 계시(1절, 헬 : 아포칼립시스) : 드러냄, 벗김, 묵시.
- 밧모라 하는 섬(9 절) : 당시 로마 제국이 범죄자들을 유배 보내던 곳들 중 한 곳.
- 주의 날(10절) : 안식 후 첫 날로서 그 당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주일.
- 발에 끌리는 옷(13절) : 제사장의 옷을 의미함.
- 오른손(16절) : 권능이나 능력을 상징함(시 20 : 6 참조).
- 좌우에 날선 검(16절) :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함(히 4 : 12 참조).
- 사자(20절, 헬 : 앙겔로스) : 메신저(인간 혹은 천사).

말씀 듣기 2 :

한 사람이 본문을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마음에 그려가면서 경청합시다.

말씀 깨닫기(30분)

1. 이 책에 기록된 계시의 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달되었습니까?(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 → 예수 그리스도 → 천사 → 요한 →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경로를 통해 전달되었다.

▶ '속히 일어날 일들'은 무엇과 관계된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속히 일어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전에 일어날 사건들(온 민족에 복음이 전파됨, 교회에 대한 핍박 등)과 그 후에 있을 사건들(최후의 심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새 창조)로 볼 수 있다.

▶ **주의 재림과 관련된 계시의 내용들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계시가 주어진 후 약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재림과 관련된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줍니까?(벧후 3 : 8-13)**

첫째,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한다. 주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둘째,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신다고 설명한다. 셋째, 그날은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항상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라고 말한다.

▶ **주의 재림의 날이 '속히' 임할 것이라는 말씀은 당신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신부 단장을 하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 그날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신학자의 말과 같이 그날의 임박성과 지연성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

2. 요한은 자기가 받은 계시적 예언의 말씀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설명해 줍니까?(2–3절)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한다. 참고로, 원문으로 보면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요한은 공중 예배시 한 사람이 낭독하고 나머지는 들었던 그 당시의 예배 정황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 **요한은 자기가 받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왜 복이 있다고 설명합니까?(2–3절)**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즉, 요한이 본 계시적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비추어 당신의 삶을 돌아 볼 때 당신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이 책을 읽고 듣고 그 안의 내용을 지키고 있는 자는 도래하고 있는 그날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이다.

3. 요한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계시를 받았습니까?(9–10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으로 인해 밧모섬에 갇혀 살고 있던 어느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계시를 받게 되었다.

▶ **요한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및 그의 재림과 관련된 계시의 말씀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및 그의 재림과 관련된 계시들을 받고 위로와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졌을 것이다.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사건들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학습은 당신의 현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주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지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과, 그날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경우와 같이 죄악이 팽배한 세상 속에 거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는 책임에 틀림이 없다.

4. 요한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해 봅시다(11–16절).

1) 인자와 같이 보였고,
2) 일곱 금 촛대(일곱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셨고,
3)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4)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5) 흰 양털 같고 눈 같이 흰 머리털을 하고 계시고,
6) 눈은 불꽃 같고,
7)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8)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9) 오른 손에 일곱 별(일곱 교회의 사자)이 있고,
10)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11)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후에 어떻게 되었으며(17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요한은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러한 반응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과 흡사한 것으로서(사 6 : 5, 겔 1 : 28,단 8 : 17, 마 17 : 1-6 참조)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당신이 실제로 보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고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이 때 인도자가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을 천천히 읽어주고 나머지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이다.

말씀 따라 살기(15분)

*인도자는 참가자용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식의 질문을 먼저 하라 :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믿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자들은 1번(개인 적용) 질문을 건너뛰어도 될 것이다.

1. **요한계시록이 왜 당신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고, 요한계시록과 관련하여 한 주간 당신이 무엇을 실천할지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주께서 속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 약 2000년이 지났다. 이 말은 그날이 2000년이나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말이기도 하다. 물론, 그 날짜를 정확히 아는 자는 아무도 없으며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항상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날을 준비하며 살도록 도전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책이다. 따라서 이 책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의 원 저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반드시 이 책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 교재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약 세 달 동안 매일 혹은 자주 요한계시록을 읽기로 결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2. **소그룹 성경공부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참여를 독려할 방법들에 대해 나누어 보고 실천에 옮겨봅시다.**
   여러 사정들로 인해 소그룹 성경공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나누어 보자(예 : 요한계시록1 : 3, 19절의 말씀을 크고 예쁘게 써서 교회 게시판에 붙여 놓기, 특별히 가깝게 지내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을 설명함으로 소그룹 모임에 초대하기 등).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서로 간에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